[붙임 2] 해설시연 작성양식

▢ 해설시연 진행개요 양식

이 름	혼혈이 만든 5월의 눈꽃		
시연대상	20대 남·여 커플 10쌍		
해설주제	은사시나무의 수분(受粉)을 통해 생각해보는 사람의 연애.		
해설재료 (교구재)	사진자료, 은사시나무 씨앗	**소요시간(′)**	8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교구재)	소요 시간
도 입	무등산 옛길과 5월의 눈	5월의 녹엽으로 둘러싸인 무등산 옛길. 그 길에 눈이 내렸다. 아니다. 눈이 아닌 씨앗?! 하얀 씨앗이 눈보다 더 보드라워 보인다. 누가 날려 보낸 걸까...?	씨앗 모형, 사진 자료	1′
주제별 해 설	산들바람이 없었다면. (식물이 수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나무는 인간과 다르다. 멀리 떨어져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사랑을 나눈다. 충매화, 조매화... 수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리고, 산들 바람이 없었다면 이 나무는 눈처럼 하얀 씨앗을 퍼트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진 자료	2′
	하얀 솜털 씨앗의 주인! 무등산 혼혈아 은사시나무. (자연잡종에 대해)	바람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준다. 그렇게 가지마다 사랑이 이뤄지면, 하얀 솜털달린 씨앗이 움튼다. 회백색 수피에 다이아몬드 형상이 점점이 새겨진 은사시나무. 그가 이 솜털의 주인이다.	사진 자료	2′
	은사시나무 군락지에서 놀아보자! (나무의 번식과 각각의 유전자가 갖는 의지)	수원사시나무와 은백양의 혼혈인 은사시나무. 그는 어떻게든 씨앗을 퍼뜨려야 했다. 탐방객의 옷섶에 붙어 조용히 움직이기. 멧돼지 콧방울에 붙어 숲 깊은 곳으로 떠나기. 무등산 혼혈아 은사시나무를 돕는 방법? 5월의 눈 속에 파묻히기! 그리고 돌아다니며 씨앗 퍼트리기.	씨앗 모형, 사진 자료	2′

(다음 장에 계속)

정 리	자연과 인간은 어쩜 이리 닮아있나.	은사시나무에게 바람과 야생 동물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친구의 조언, 영화의 명대사, 예상 밖의 만남, 지금 무등산에서 경험 중인 이 산행까지. 5월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광경은 은사시나무 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사진 자료	1′

(끝)

시나리오 본문

(씨앗-눈스프레이를 날린다)
(시작하기 전 은사시나무 솜털씨앗이 사방에 날리는 옛길 1구간에 있다는 점을 말해놓고 시작)
안녕하세요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정승호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특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평생동안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싸....?...싸~랑하는 사이이시죠!? 핑크핑크한 봄 날씨에 사랑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저 또한 맘이 설렙니다.

여러분 눈 앞에 5월의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영화 러브 스토리의 한 장면을 연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옷에 묻으면 어때요, 털지 마시고. 젖을 걱정도 없는데.
자, 잠시 영화 속 두 주인공이 되어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쉬고) 불과 1년 전만해도 웹툰 작가였습니다. 기안84 같은 유명 작가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네이버에 제 작품을 검색하면 바로 나올 정도의 노력은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여러분 앞에 서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 절 변화시켰어요. 그 여러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앞에 솟은 새~하얀 은사시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시나무'하면 혹시 생각나는 말 없으세요? 네, 맞아요. '사시나무 떨 듯이 부르르 몸을 떤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시나무가 빨리 성장하면서 수분을 내뿜는데, 그때 잎이 바르르 떨려요. 그 모습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란 말이 생겼대요. 그런 사시나무가 은백양이라는 같은 버드나무과 나무와 만나 은사시나무가 탄생했어요.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현신규 박사란 분이.. 이 분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 닮았는데, 산지에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 토종인 수원사시나

무와 은백양을 인공적으로 섞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 녹화사업하기 쉬웠거든요. 덕분에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고, 현 박사님의 공을 기려 현사시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뒹굴었던 이 솜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은사시나무 씨앗이에요. 식물은 암꽃과 수꽃이 만나 사랑을 나누면 이렇게 씨앗을 퍼뜨립니다. 본능이에요. 인간으로 따지면 남녀가 뽀뽀하고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아요. 중간 단계가 생략됐지만... 잘 아시죠?

그런데 나무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요? 혹시 우리가 잠깐 눈돌리고 있으면 뒤에서 부둥켜 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상해보면 왠지 으스스하죠? 그래요, 지금 그 상상이 으스스한 이유엔 '나무는 움직일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누군가를 바로 '꽃가루 매개자' 또는 '화분수'라고 합니다. 일종의 대리 사랑 서비스인 거죠.
(앞의 커플 가리키며) 이분과, 이분이 뽀뽀를 하려면, (가운데 사람 가리키며) 이분에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이 이분에게 뽀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나무들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음....왠지 나무가 불쌍해지는 걸요.

이 가운데 분이 하셨던 역할, 즉 꽃가루 매개자의 대부분은 곤충입니다. 벌, 나비 같은 곤충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잔뜩 묻혀 암술로 옮겨, '수분'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나무 입장에서보면 벌이나 나비는 차라리 나을 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파리도 매개자가 돼주겠다고 이이이잉(손 비비며) 날아오는데, 오우 나무입장에선 좀 싫겠죠?

(김상중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은사시나무는 앞서 말한 충매화, 즉 곤충이 꽃가루를 매개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구요? 그보다 더 불쌍하고 더 변태같습니다! 한 번 알아맞춰보시겠어요? 은사시나무의 꽃가루매개자는??
네! 맞아요, 바람! 풍매화입니다. 한 번 상상해보세요. 아, 당신을 사랑해. 우리 뽀뽀하자! 그래, 기다려봐, (므흣한 눈빛으로) "어때, 느껴져? 어때???" 이런 겁니다.
곤충보다 더 불쌍하죠? 오직 바람의 보이지 않는 흐름에 기대 수분을 해야 하니까요. 이 밖에 새를 매개로 하는 식물도 있고 물가에 자라는 이들은 꽃가루를 물에 띄워서 수분하기도 해요.

바람으로 수분을 하고, (씨앗 들어올리며) 이 조그마한 씨앗이 싹을 틔워 이렇~게 크게 자라다니. 참 대단하죠? 이런 은사시나무를 혹시 돕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아까 여기서 뒹굴 때 묻은 씨앗을, 털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들 집 주변에 퍼뜨려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무등산 멧돼지들이 실어 나르고, 다람쥐 꼬리에 묻어 이동하고 여러 동물들도 도울테니 부담을 갖지 마시구요.

은사시나무 뿐 아니라 모든 나무는 사랑을 나누고 씨를 퍼뜨리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유독 불쌍해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도움을 받는 건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중요한 부분)**

우리도 연애할 때, 친구의 조언, 예상 밖의 사건, 심지어 거리에 흐르는 음악까지. 여러가지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설마 독방에 갇혀 서로 얼굴만 보고 사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런 주변 환경 덕분에 벌어지는 일들이 두 사람만의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둘을 돈독하게 만드는 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년 전 선배 해설사님의 해설을 따라왔다가 이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날 저녁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시 들를 정도였죠. 5월의 눈밭은 인간이 떠올릴 법한 의외의 풍경이잖아요? 인공눈으로 스키장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 걸 자연이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들에게도 로맨스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제게 이 은사시나무가 무등산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끈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경험 중인 5월의 눈밭, 여기서 뒹굴며 사진 찍었던 것들이 두분의 작은 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커플분들, 건전한 연애 끝에 훌륭한 씨앗을 퍼뜨리길 바라며, 자연환경해설사 정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